

소공동체 모임순서 (복음나누기 7단계)

- + 성호경
- + 이달의 시작 성가 (402장)
- + 출석확인파 인사 나눔
- + 소공동체 기도문
- + 복음 나누기 7단계 (이달의 복음: 루카 10, 38-42)

1단계 : 주님을 초대한다.

- 한 두 분이 기도로 예수님을 초대해 주십시오.

2단계 : 성경 본문을 2번 읽는다.

- ...복음 ...장을 펴주십시오.(참가자들이 본문을 찾을 때까지 기다린 후)
- 어느 분이 ...장 ...절에서 ...절까지 천천히 읽어주십시오.
-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읽어 주십시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새기며 고요히 되됩니다.

3단계 : 성경 본문 중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구절을 외친다.

- 각자 마음에 와 닿는 단어나 짧은 구절을 세 번씩 외쳐주십시오.
- 어느 분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4단계 :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다.

-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합시다.

5단계 :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말씀을 나눈다.

- 순서 없이 자유롭게 각자의 마음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말씀을 나눕시다.
- ※ 나누기가 끝난 후 “함께하는 복음 묵상”을 읽는다.

6단계 :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누고, 실천을 다짐한다.

- 지난 달에 공동체(각자)가 정했던 실천 사항을 어떻게 실천했는지 나누어 봅니다.
- 이번 달에는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각자)에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정합시다.
- ※‘말씀이 우리와 함께’를 공부하고, 공지사항, 건의사항, 차기장소 결정을 한다.

7단계 : 자유롭게 기도한다. (손을 잡고~)

-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 + 소공동체가
- + 영광송 및 성호경

진행자가 기억해야 할 사항

- ① 복음나누기 7단계에 제시된 그대로(“한 두 분이...”) 각 단계를 읽어주십시오.
- ② 참가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하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3단계, 5단계에서는 진행자도 할 수 있으나, 첫 발언자가 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먼저 발언하게 하십시오.
- ③ 마지막 발표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발언하게 되면 진행자가 마치 정답을 주는 사람으로 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④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격려하십시오.
- ⑤ 각 단계에서는 참가자들의 참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느긋하게 기다리십시오.

함께하는 복음 묵상

루카 10,38-42 마르타와 마리아를 방문하시다 (연중 제16주일)

+ 찬미 예수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서론, 본론, 결론으로 오늘의 말씀들을 나누어 보면, 서론인 1독서(창세 18,1-10ㄴ)에서 아브라함이 지나가던 나그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가신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가에 대한 내용과 그의 지극한 섬김을 보시고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을 지극한 정성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본론인 루카 복음(10, 38-42)의 내용도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르타가 예수님을 시종들며 여러 가지 일에 신경을 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와 달리 가만히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님을 섬기는 두 가지 모습을 보여 줍니다. 섬기는 모습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분명하게 어떤 것이 옳다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결론인 2독서(콜로 1,24-28)에서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게 하려고, 우리는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타이르고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을 섬기는 방법이란 스스로는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남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타이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관심과 차가운 관심, 나 위주인가? 상대 위주인가?

부부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인데 남편이 일어나 주변 것들로 바쁘게 살아가며 정작 아내와 가족에게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배우자를 위해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서는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예로 들은 바쁜 일들 역시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기는 합니다. 이것도 역시 사랑에서 나온 관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아야 합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만으로 ‘아내에게, 아이에게 이것이 필요할 거야’라고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차가운 관심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일을 하는 것이 뜨거운 관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차가운 관심이 아닌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겠습니다. 그 뜨거운 관심을 주님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가져봅시다. 그것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참다운 섬김일 것입니다.

(수원교구 7월 소공동체지에서 발췌)

공지사항

※ 7월 14일(일)에 성탄절 영세반 예비 신자 입교식이 있습니다. 입교식에 많은 분들을 인도해 주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이 우리와 함께’

◆ 판관기에 대한 설명

- 1) **판관이란 재판관을 의미하나요?** 이들은 말 그대로 재판하거나 법적인 결정을 내리는 사람은 아니었다. 판관들은 하느님의 영에 의해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투사 혹은 영웅들이었다. 성경에 의하면 드보라의 경우에만 구원자의 역할 외에 재판하는 역할도 담당했다고 전해진다. 각 판관들의 생애는 모두 다르지만, 군사적 영도자로서 승리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 2) **어떤 사람이 판관이 될 수 있었습니까?** 판관직은, 세습이 되던 왕위와는 달리 그때그때 필요한 경우에 하느님께 불림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느님의 영이 내린 사람이면 누구나 판관으로 나섰다. 판관은 카리스마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그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영적 능력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어려움에서 구할 수 있는 구원자 자질을 갖추게 되었기 때문이다.
- 3) **그렇다면 판관들은 영웅으로 추앙받았습니까? 판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판관들이 영웅으로 숭배받는 일은 있을 수 없었다. 그들이 인간적으로 용맹해서 판관으로 출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돌보시고자 보내셨다는 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판관들의 구원 활동을 통해 하느님께서 자신들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체험하곤 했다.
- 4) **머리카락에 특별한 힘이 있었다는 삼손은 나지르인이었다는데, 나지르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민수기 6장에서, 나지르인으로 서원을 한 사람들은 포도주를 멀리하고, 머리털을 깎지 않으며, 시체를 만지는 부정을 범하지 말아야 하고, 서원 기간이 끝나는 날에는 성대한 제사를 드려야 했다. 이들은 자원하여 하느님께 서원했다. 그러나 삼손 시대의 나지르인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성별된 사람들이었다. 이들 역시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는 것을 평생의 의무로 삼았다. 삼손은 나지르인으로서 하느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등장했다.

◆ 이 달에 읽을 말씀: 판관기 9-16장

판관 13,1-16,31 을 읽고 맞는 답에 O표를, 틀린 답에 X 를 써 넣으시오.

1. 삼손이 태어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에, 주님께서서는 마흔 해 동안 블레셋인들의 손에 넘겨 버리셨다.()
2.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느님에게 봉헌된, 하느님의 소명을 받은 하느님의 사람이었다.()
3. 주님의 천사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아내를 대신하여 처음 마노아에게 나타났다.()
4. 천사는 마노아의 아내에게 앞으로 낳을 아들이 이스라엘을 필리스티아인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이라고 계시하였다.()
5. 마노아가 주님께 드린 번제물은 새끼 양 한 마리와 곡식 예물이었다.()
6. 삼손이 팀나에서 필리스티아 여자를 보고 마음에 든 것은 주님께서 필리스티아인들을 칠 구실을 찾기 위함이었다.()
7. 필리스티아인들은 삼손의 수수께끼를 자력으로 풀어냈다.()
8. 삼손은 들릴라에게 자신의 힘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았다.()
9. 삼손이 신전의 기둥을 밀어 죽인 필리스티아인들의 숫자는 그가 사는 동안에 죽인 사람보다 더 많았다.()
10. 삼손은 스무 해 동안 이스라엘의 판관으로 일하였다.()

◆ 말씀과 생활 나누기

판관들의 활약으로 점차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이야말로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믿음이 강하게 자리하게 됩니다. 내 인생 여정에서 하느님은 어떻게 함께 하고 계십니까? 잠시 묵상하고 그 경험과 생각을 서로 나눠 봅시다.

소공동체 기도문

소공동체가

정수
정원
원곡
시작

○ 하느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사오니 여기 모인 모든 이들과 이 가정에 강복하여 주십시오.

● 주님, 저희는 오늘 소공동체 모임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고 부지런히 공부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려 합니다.

○ 주님께 청하오니 저희와 함께 하시어 엘마오 제자들에게 하신 것같이 저희에게도 이루어 주십시오.

● 당신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나누듯이 나눔의 생활을 할 때마다 저희의 영적 눈이 밝아져 저희와 함께 계신 주님을 알아 뵈게 하여 주십시오.

○ 문을 닫아걸고 무력함과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 주신 주님, 저희에게도 성령을 보내 주시어 기쁨과 확신에 넘쳐 주님을 전파하며 주님을 위하여 고통을 받는 것도 기쁨으로 알게 하여 주십시오.

● 그리하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느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리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하느님 백 성 자 녀들 아! 모 두 모 - 여 라

우 리 의 삶은 주 님의 것 함께 노래하자 임할 무 아

종 - 기 하 고 공 사화 자 세 상 모 두에 게

마 음 보 - 아 기 도하 고 함께 나가자 전곡 으 로

하느님 사랑이 가득한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하느님 사랑이 넘치는 곳 우리 구 역 반공동체 -